

우리 출판사 이 책!

1998년 여름, 그리 낯설지 않은 건축문화재 원고를 마주하면서 흥분과 설레임이 동시에 찾아왔다. 서울 편을 비롯해 각 도별로 대학에 있는 전공학자들이 집필한 것으로, 그 방대한 도면과 사진을 보니 한국건축사의 자료들을 집대성하기까지의 고충과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건축문화재》는 건축·토목 등 전문도서 한 분야에서의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홀대받아 왔던 전통건축에 대해 재정립한 책이다. 기획과 출판결정에 이르기까지 회사에서도 대단한 열정을 보인 숙원사업 중 하나다.

우리 건축문화의 뿌리를 더듬어 내려가는 지식탐구를 중점으로 한국의 건축문화재를 총망라해 학문적 접근으로 써내려갔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말도 있었지만, 건축사적 가치로 본다면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집필에 들어간 것인 만큼 집필진의 대장정에 가까운 기나긴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어느 집필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 2년여 동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헤진 신발 몇 켤레를 갈아 신으면서 사진을 찍고 버

리고, 또 찍기를 여러 번, 수천 장의 사진을 눈앞에 펼쳐놓고도 아쉬움에 밤새 잠을 설쳤다고 한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교수님을 도와주고 있는 박사과정의 한 연구원이 눈비를 흠뻑 맞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건물의 방향을 잘못 잡아 다시 찍었다는 사진과 함께 며칠에 걸친 밤샘작업으로 문화재 위치도면을 작성했다며 건네주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틈도, 미처 우산을 챙겨줄 겨를도 없이 바빠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 뒷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다.

그렇게 시나브로 2,3년에 걸친 자료수집을 마치고 책으로 엮어나가는 데 또 1년... 그만큼 제작기간도 길어져 2년에 걸

친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해야 했다. 처음 접하는 전통건축용어에 시달려야 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한 권 한 권 엮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저 쉽게 지나쳐버렸던 전통건축물의 한 귀퉁이, 지붕마루 끝에 세워진 망와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새롭게 보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 유구한 유산들에 대해 더없는 자존심과 함께 자긍심으로 어느 순간 애착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건축문화유산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가는 것은 시간다툼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빨리 선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해 앞으로도 만나야 할 건축문화재들이 기대된다. 2004년, 지금은 전북편을 출간할 예정이다. **한민족**

《한국의 건축문화재》 (전10권 중 5권)

서울편	홍대형 지음	기문당	575쪽	값 25,000원
강원편	박경립 지음	기문당	430쪽	값 16,000원
충남편	이왕기 지음	기문당	464쪽	값 16,000원
경남편	강영환 지음	기문당	380쪽	값 14,000원
전남편	전봉화·천득염 지음	기문당	520쪽	값 20,000원



한민족 얼 담긴 건축문화재 들여다보기

기문당 한복임 · 편집장

얼썬! 탈춤 한번 취 보실래요?

깜짝 놀랐다. 느닷없이 춤을 추자고 하는 작가 선생님도 그렇고, 원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가 선생님을 처음 뵈는 순간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염을 멋지게 기른 송인현 선생님은 겉으로 보기에도 예술가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예술가라는 선입관을 배제하더라도 작가 선생님이 하는 일은 독특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동을 주로 하는 극단 '민들레'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아동극에 접목시켜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와 연극을 동시에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 '탈춤'이라는 기획안을 받았을 때 모두들 상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소위 말하는 잘 팔릴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엔가 이 끌리듯 순순히 책을 내는 일이 진행되었다. 아마도 책의 운명이 두산동아와 함께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처음 원고를 접했을 땐 몹시도 거칠었다.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원석을 잘 다듬고 가공한다면 좋은 책이 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있었다. 물론 그 몫은 편집자의 일이자 사명이지만, 하여튼 작가 선생님의 두 번의 퇴고와 몇 번의 교열로 거칠고 투박한 원고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는 재미있는 탈춤 이야기로 바뀌었다.

'탈춤이라는 생소한 소재를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 줄까' 하며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 고민은 그림과 사진, 그리고 대화 형식의 이야기 전개로 해결하기로 했다. 책이 나오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진을 좀더 재미있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다고 사진이 쉽게 구해진 것은 아니었다. 작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 부족해 이곳 저곳을 수소문했지만, 입맛에 맞는 떡이 쉽게 구해지지는 않았다. 결국 병중에 계신 탈춤 전수자 분께서

어렵사리 사진을 챙겨주셔서 이만한 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진들도 선뜻 내주셔서 책의 가치를 더해 주셨다. 책이 나오는 시점에서 작가 선생님의 은사이자, 이 책에서 봉산탈춤 예능보유자 할머니로 나오는 윤옥 선생님이 세상을 달리해 작가 선생님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실제로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에게 탈춤을 가르치고 있는 작가 선생님과 미팅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덕분에 다시 그 시절로 잠깐 여행을 떠날 수 있어, 이 책을 만드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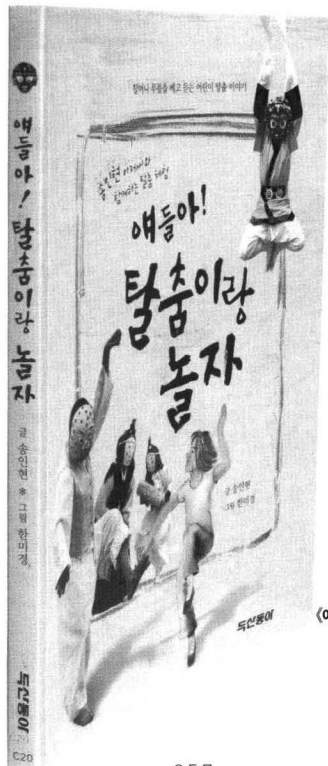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의 탈춤을 느끼고 체험해 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부를 하듯 딱딱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피 속에 녹아 있는 전통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체험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구성이 마치 동화를 읽듯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이 나오고 나서 작가 선생님이 연출하고 출연하는 전통 아동극 '똥벼락'을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는 기회까지 덩으로 가질 수 있었다. 이 책의 운명이 우리 전통문화의 맥과 함께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천**

탈춤의 재미, 동심童心에게 전해주려 최선을 다했죠

# 두산동아

석인수 · 편집부



《애들아! 탈춤이랑 놀자》 송인현 지음 | 한미경 그림 | 두산동아 | 136쪽 | 값 8,500원

“아이들이 읽기에 뭔가 좀 순수하고 긍정적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을까?”

판타지와 무협소설이 범람하는 요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영혼과의 교감, 혹은 내면의 성숙함을 가꿀 수 있는 성장소설을 기획하다가 '사라'를 발견했다. 이 책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러나 '해리포터' 시리즈가 돌풍을 일으켰고 한때 인쇄소가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상황에서, '사라' 시리즈는 기획단계부터 '해리포터' 시리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판타지와 남녀 학생의 연애담에 폭 빠져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호기심 많은 소녀 '사라'의 신비롭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꼭 한번 읽게 하고 싶

었다. '해리포터'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세계에 관한 책이라면 '사라'는 따분하고 우울한 현재의 삶에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마법 같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의 아이들이 인스턴트식품에 입맛이 길들여져 현미밥, 고구마 등의 고유한 맛에는 별 흥미를 못 느끼듯이, 장엄하고 신비한 '사라' 이야기가 자칫하면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해리포터' 시리즈 못잖게 '사라' 시리즈도 미국 최고 권위지 <육체, 정신, 영혼>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되면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책이다.

“전 세 번이나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돼요.”,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최고예요.”, “행복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이에요.” 등 '사라' 시리즈에 쏟아진 찬사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사라'가 이가서에서 번역되어 나왔는데 '해리포터' 열풍에 가려 한국의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과연 '사라'는 '해리포터'의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물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판매상황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위안했다. 이런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독자들의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터넷서점의 독자클럽이 점점 늘어나고, 독서교육연구회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등 항상 '사라'가 말하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이 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으며 특히 “좋은 책과 좋은 향기는 오래 곁에 있을수록 값진 것처럼, 이 책 또한 오랫동안 내 옆에 간직하고 싶습니다”라는 독자의 글 속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해리포터' 처럼 돌풍을 몰고 우리 곁에 다가오진 않았지만, '사라'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바꿔주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리 '내면의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리포터'와의 한판승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추천**

열 살 소녀의 영혼을 따라가는 신비한 성장기록

# 이가서

서진영 · 편집부 과장



《사라》(전3권) 에스더 & 제리 힉스 지음 | 이미정 옮김 | 이가서 | 각권 240쪽 내외 | 값 1권 8,300원, 2·3권 8,900원

늘푸른아이들이 민서출판사의 자회사로 첫 발돋움하던 해 겨울,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쓰고 그린 한국사 이야기》를 만들려 했을 때, 주변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는 명료하고 단순했다. 작가도 아닌, 보통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그것도 책을 단 한번도 내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에게 3권이나 되는 역사서를 맡기겠다는 발상이나, 그림까지 아마추어 선생님께 맡긴다는 생각 자체가, 날로 인기작가와 프로 화가들의 그림에 의존하는 아동시장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비정상 아니었겠는가. 더구나 하루빨리 잘 나가는(?) 책을 만들어 안정적인 모양새를 갖추어야 하는 마당에 말이다. 아마 내 주변의 쟁쟁한 편집자나 기획자들은, 한편에서 나의 무모함을 비웃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교대 후배이고 제자이기도 한 이 선생님들이 발령 초기부터 일부러 5,6학년 담임을 맡으며 교과서를 분석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사 항목들을 수집해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믿음이 있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야말로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교양 학습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림이 어설피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마추어이면 어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라면 무엇을 바라겠는가? 다행히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교실마다 선생님의

어설피든 삽화를 흉내내며 따라서 그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선생님들이 그 그림으로 역사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화려한 그림만이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자족할 수 있었다. 하긴 화려하고 완벽한 그림은 어른들의 취향이고 다분히 장식적 요소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또 하나의 욕심이 있었다면, 역사책마다 늘 등장하는 똑같은 사진 대신, 박물관 도록에만 의존하는 빛바랜 반사분해 사진 대신 살아 있는 생생한 사진을 책에 넣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 사진 전문가이셨던 이 모 선생님께 유물사진을 찬조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팔자에도 없는 사진을 배웠다. 그리고는 겹도 없이 한 통에 7,000원씩이나 하는 슬라이드 필름을 끼우고 알려진 유적지와 버려진 향토 사적지까지 직접 제자 선생님들과 함께 돌아다녔다. 어가행렬이나 경북궁 수문장 교대식, 어연제 등을 찾아다니고, 그래도 빠뜨린 지방의 유적지 사진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 동호회 회원들에게 부탁하여 얻어내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부탁한 단 몇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순천의 서재필 공원을 찾았고, 영일만을 돌아다녔으며, 화순 고인돌 공원을 헤매었다. 그런 뒤에는 겹겹이 포장한 슬라이드 필름을 내게 보내 주었다. 그뿐이던가. 감히 사장님에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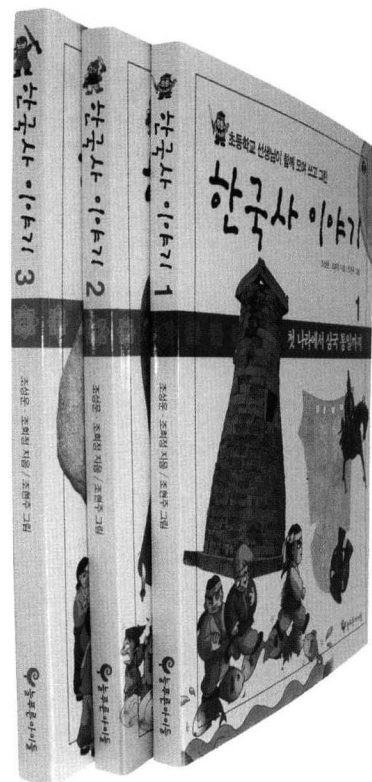
카메라를 들고 강화도, 수원, 정읍을 비롯해 여러 곳의 지방출장을 강권하는 '하극상' (?)을 저질렀음에라.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책에 빛이 많다. 평균 두 달에 한 번 꼴로 돌아오는 재쇄 때마다 사진 바꾸기를 몇 차례, 부족한 원고를 메꾸기를 또 몇 차례 한다. 하지만 아직도 손보아야 할 곳이 많은 것을 보니, 꾸준히 이 책을 사랑해 주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다음쇄 때에도 또 몇 장의 사진과 그림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그 사이에 나의 허접한 사진 실력이 조금이라도 늘테고, 멀리 순천이나 제주에 서까지 좋은 사진을 찍었다면서 숨어 있는 유적지 사진까지 보내주는 동호회 친구들이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게다가 이제는 수십 명이 훌쩍 넘어버린 제자 선생님들이 틈틈히 모니터링 해주는 내용까지 다듬고 첨가해야 하니, 이 책에 진 빛이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한정영**

책 한 권에 진 빛 그리고 빛난 아마추어 정신

# 늘푸른아이들

한정영 · 기획실장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쓰고 그린 한국사 이야기》 (전 3권) 조성운·조희정 지음 | 조현주 그림 | 늘푸른아이들 | 1권·3권 200쪽, 2권 204쪽 | 값 각권 8,700원